

날짜		이름	
----	--	----	--

YM고전읽기 논술 능력고사(초등3~4학년)

[문제] 아래 이야기의 밑줄 친 내용을 해석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는 점을 들어 홍육심 학생을 비판해보자. (600자 내외)

YM초등학교 4학년 2반 아이들은 놀이공원으로 봄소풍을 가기로 결정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소풍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소풍날에는 모둠별로 도시락을 준비해서 같은 모듬원이 준비한 도시락과 간식을 함께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소풍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나전학 학생이 새롭게 2반에 전학을 왔습니다. 나전학 학생은 새로운 친구들에게 잘 부탁한다며 초콜릿을 선물로 잔뜩 사 왔습니다. 반장 백리더는 초콜릿을 반 뒤편 사물함 위에 올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이 초콜릿은 여기다가 둘게. 욕심부리면서 한 번에 여러 개씩 먹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만 먹자. 그러면 모두가 충분히 몇 개씩은 먹을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은 모두 좋다고 얘기하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홍육심 학생은 혼자서 초콜릿을 다 먹고 싶었습니다. 홍육심 학생은 평소에도 “나 한 명쯤 욕심내고 살아도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초콜릿을 하나씩 가져갈 때 몰래 열 개씩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 많던 초콜릿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도 모두 동이 나 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아이들은 몇 개 먹어 보지도 못 했는데 초콜릿이 다 없어졌다고 울상이었습니다. 그 뒤로 반 아이들을 위해 초콜릿이나 간식을 사오는 학생은 없었고 홍육심 학생도 간식을 얻어먹을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놀이공원에 가기 전날이 되었습니다. 홍육심 학생이 속한 3모듬엔 모두 여덟 명이 있었습니다. 도시락 준비를 하려던 홍육심 학생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만있어 보자. 모듬원이 여덟 명이니 나를 빼고서도 도시락을 싸 오는 아이가 일곱 명일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나 한 명쯤 도시락을 안 갖고 가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다른 애들이 자기 먹을 거보다 조금씩 더 많이 가져올 테니 말이야. 그래, 도시락 준비하는 것은 귀찮고, 오전 내내 무겁게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 남한테 얻어 먹으

면 되는데 뭐하러 내가 도시락을 준비하겠어? 역시 난 천재야!”

다음날 홍욕심 학생은 어떤 도시락도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아침부터 신나게 놀이기구를 타고나자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4학년 2반 아이들은 모둠별로 흩어져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내 나누어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3모둠 아이들은 아무도 도시락을 꺼내지 않고 다른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3모둠 아이들 중 아무도 도시락을 꺼내지 않자 홍욕심 학생은 초조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3모둠 아이들은 하나같이 홍욕심 학생처럼 생각해 나 하나쯤 도시락을 갖고 가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고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안 가져온 다른 아이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3모둠 아이들은 다른 반 아이들이 배부르게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을 동안 꼬르륵거리는 배를 잡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홍욕심 학생은 또 다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다 더 많은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끝)